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시대 상징을 중심으로—

이수진·한명숙
상명대학교 가정학과

A Study of Clothing Symbolism on Popular Music —Focused on the Periodic Symbol—

Su-Jean Lee and Myong-Suk Ha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Sang Myo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Ⅲ. 유행가요 가사와 복식의 상징성
Ⅰ. 서론	Ⅳ. 결론
Ⅱ.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ation of the clothing symbolism on the words of a popular music. The result shows that clothing symbolism on the popular music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periodic background. And also that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the clothing as a symbol.

I. 서론

본 논문은 일제시대부터 1994년에 이르는 유행가요속에 나온 복식을 분석하여 당시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제 식민지 초기인 1920년대에 막을 올린 유행가요는 시대의 모습을 시대인과 가장 가까

이 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 유행가요 속에는 단발령과 관복 개혁 그리고 이어진 열강들의 세력 침투로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양복이 평상복화되기까지 우리의 복식들이 함께 나와 있다. 동시에 일제시대 국민복에서 88올림픽의 마스게임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평상복에 이르기까지 복식은 제2의 피부로서 항상 인간의 생활에 가까이 하여 착용자의 소속, 가치, 이념과 의식, 사진, 시대¹⁾ 등을 표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을 갖고 사회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유행가요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고 복식은 강력한 상징이다. 그러나 아직 그 대중가요 속에 나온 복식을 통해 그 시대상을 본 연구는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유행가요 가사 속의 복식을 통해 드러난 시대상을 알아봄으로써,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이후에 발표된 유행가요 중 복식이 가사 중에 나온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유행가요 가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상징성을 고찰하기 위해 시대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해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사 연도가 밝혀져 있는 것들만을 채택하였으며 해방 이전의 가사는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복식은 옷과 가방, 손수건 등의 액세서리와 구두를 포함한다.

연구의 시기는 유행가 시대가 막을 올린 1920년대로부터 1994년까지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해방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이므로 1920년대부터 해방까지를 한 시기로 잡고,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기 전인 1950년대까지를 한 시기로 잡았다. 1960년대부터는 시대 변천사나 가요 변천사에서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나눈 것을 따라 10년씩 하였고, 1980년대부터 1994년에 이르는 시기를 마지막 시기로 잡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어-유행가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석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²⁾

언어는 또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집단에 따라 나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한 사회 안에서 지역과 여러 가지 사회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서는 문화가 언어의 구조와 내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가 문화의 다른 측면과 인간의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언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 관계와 사회 구조 및 사고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언어는 또한 인간에게 추상과 사고의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인간도 사물, 행위 또는 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사회에서 약속한 바의 동일한 영향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의사 전달

1) 한명숙,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분석",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7, p126.

2) Susan Kaiser, 복식사회 심리학, 김순심의 역, 경춘사, 1991, pp.214, 182, 183.

을 한다.³⁾

이런 언어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이 음악이다.⁴⁾ 그 음악의 한 분야인 노래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향유해 왔다. 일터에서는 노동요를, 놀면서는 놀이요를, 관혼상제에서는 의식요를 동반하였다. 아가와 더불어는 자장가를, 혼경을 조종하는 부당도 노래를 불렀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할 때도 노래하였다. 이런 풍습은 현대로 이어져 노래방 문화를 꽃피웠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집에 신랑의 친구들이 찾아가 '함'을 빙자하여 노래하게 하는 여흥의 풍습도 생겨났다.⁵⁾

노래는 가사와 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체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노래의 창작자가 노래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이며, 노래 수용자는 노래를 듣거나 부름으로써 창작자의 의사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노래는 가사와 곡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 소통의 수단이다.

한편 노래는 의사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의미 속에는 사회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G. Simmel에 따르면 음악(노래)의 기원을 구어에 있으며, Simmel은 음악을 다양한 사회적 총체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취급하여, 결국 음악의 의미 속에는 사회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⁶⁾ 즉 노래는 사회의 의미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창작자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인 것이다.⁷⁾

노래는 한 사람의 창작자가 악보에 옮겨 놓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래는 창작자와 행위자의 만남을 전제로 하며 창작자의 행위와 노래 부름의 행위가 하나의 사회적 체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공통의 정서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다.⁸⁾

우리는 늘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살아간다.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노래 중에서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노래는 '유행가요'이다.⁹⁾

그 속에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 즉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함께 담겨져 있다. 그 노래에는 시대와 함께 사회나 풍속과 더불어 변해 가는 인간 모양이 그려 있다.¹⁰⁾

Ⅲ. 유행가요 가사와 복식의 상징성

1. 1920년~해방 이전

- 3) 한상복 외,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p.329-330.
- 4) Moissej S. Kagan, Vorlesungen zur marxistisch-leninistischen Asthetik, Berlin, 1975, 진중권 역, 미학 강의 II, 새길, 1991, p.364.
- 5) 김영준, 한국 가요사 이야기, 아름출판사, 1994, p.412.
- 6) G. Simmel, *Psychological and Ethnological Studies on Music*, N.Y.: Teacher's College Press, 1968, p.98. 김 비경,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서의 대중가요에 관한 연구' 고려대, 1990, p.13에서 재인용.
- 7) 박성진,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매체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93, p.11.
- 8) 김창남, 삶을 저항하는 노래 '노래 운동론', 서울:공동체, 1986, p.5.
- 9) 박성진, 전제서, p.1.
- 10) 박찬호, 전제서, 한국가요사 1985년~1945년, 안동림 옮김, 현암사, 1992, p.6.

1920년에 들어서면서 창가는 구국 운동에 앞서 우선 철저한 민족의 슬픔을 달래는 매개체로서 또한 저항 음악으로 변모되면서, 예술가곡과 대중 음악에로의 새로운 음악 형태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창가에서 분리된 대중가요는 이 시기에 대부분 일제의 침략에 대한 분노를 작사자나 작곡가들이 몹소 겪은 아픔으로 표현한 노래들이 주를 이룬다.

1920년대에 발표된 <사막의 한>은 경쾌한 템포의 노래이지만, 그 가사 속에 나오는 망국의 설움을 안고 사막에서 망황하는 '나그네'의 이슬 젖은 옷깃'엔 나라 잃은 조선인의 눈물이 함께 배어 있었다.

<여장에 기대어>에 나오는 '찢긴 치마폭'에도 역시 빼앗기고 유린된 국토와, 그로 인해 느끼는 민족의 아픔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바람에 떨린 때묻은 소맷자락'과 함께 힘겹던 당시 민족의 삶이 함께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때묻은 소맷자락 바람에 떨린다.
객창에 시달린 몸
객창에 시달린 몸 한숨만 긴데
정든 산천 정든 사람 다 내버려두고
만리 타향 여기까지 왜 내가 왔나 왜 내가 왔나

찌저진 치마폭에 눈물이 번진다.
가슴에 엉킨 사정 풀길 없는데
설음만코 눈물만코 하소연 많은
이저가지 없는 몸은 어데로 가나 어데로 가나

-<여장에 기대어> 1, 3절

<절레꽃>은 작곡과 김교성과 가수 백난아가 만주 공연을 했을 때 독립 투사와 함께 짐승하여¹¹⁾ 만들어진 것이다. <절레꽃>가사 속에 나오는 고향의 '자주 고름 입에 붙고 눈물 어렸던 친구의 모습'에 담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가득한 그리움은 <고향산>의 '눈에 젖은 소매' 속에도 함께 젖어 있는 것이다.

<목포의 눈물>을 가리켜서 '민족의 눈물'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다. 일제의 압박이 다양한 양상으로 지속되던 1930년대 중반에 <목포의 눈물>은 탄생되었다. 그리고 삼시간에 만인의 노래가 되어 전국으로 메아리쳐 퍼져 나갔다.¹²⁾ 조선인에게 있어서 항구란 일제에 의해 생활의 양식을 빼앗긴, 또 토지를 빼앗기고 육친이 타향으로 유랑의 길을 떠난 민족적 비애가 엮어 내는 이별의 무대로 상징되고 있다.¹³⁾

'새악씨의 아롱져진 옷자락'에 바로 이런 일제 치하의 눈물과 한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

11) 박관호, 전계서, p.320.

12) 박관호, 상계서, pp.418-419.

13) 김영준, 전계서, p.446.

14) 박관호, 전계서, pp.301-302.

때문에 <목포의 눈물>은 일제에 대한 한이 집약된 저항의 노래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롱저진 옷자락의 새악씨가 당해야 했던 강제적인 이별 장면도 실제로 조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영원한 이별¹⁵⁾이 된 경우도 많았다.

사공의 뱃노래 강을 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히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저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서름
-분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목포의 눈물> 1절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1937년에 또 하나의 빅 히트 곡이자 <목포의 눈물>의 속편 격인 <해조곡>을 공개하였다. 일제가 문화 정책을 강화하던 당시 우리 민족의 반일 감정도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⁶⁾ <해조곡>도 표면적으로는 님을 그리워 하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용 등으로 끌려간 연인에 뱃대어 흘린 눈물에 젖은 우리의 전통옷인 '저고리' 속에는 당시 민족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과 나라 잃은 설움이 함께 노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제 연행되어 감방 같은 방에 갇힌 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당시, <연락선은 떠난다>에 나오는 '손수건'은 일제의 수탈로 눈물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눈물 젖은 손수건은 역시 당시 조선인의 이런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쌍 고동 울어 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잘 가소 잘 있고 눈물겨운 손수건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아이 울지 마세요' 울지를 말아요
-박남포 작사, 이봉룡 작곡 <연락선을 떠난다>

1920년~해방 전의 곡들은 일제의 수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반일 감정이 표현된 곡들이 대부분이다. 당시의 대중 가요 속에 나온 옷깃, 치마폭, 소맷자락, 옷고름, 저고리, 손수건 등에는 망국의 설움이 그 눈물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복식 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해방 이후 ~ 1960년대

1945년 8월의 해방의 기쁨.

오랜 세월을 걸친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조선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전국에 환희

15) 상계서, pp.301-302.

16) 김영준, 전계서, pp.448-449.

<표 1> 1920년대부터 해방까지의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용어

· 새벽이슬 축축히 옷깃을 적시우네	· 때무든 소매자락 바람에 떨린다.
· 찌저진 치마폭에 눈물이 번진다	· 자주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저저
· 소매에 떠러지는 눈도 고향눈	· 부두의 새악시 아롱저진 옷자락
· 물항라 저고리에 눈물 젖는데	· 잘가소 잘있소 눈물겨운 손수건
· 고무신 한 켤레 사달라고	· 인조견 치마감에 가슴이 뛰누나
· 금단초 학생양복 입고 사각모자를 쓸테야	· 당기 느린 새과부가 긴 한숨을 짓네
· 갓 쓴 신랑 단발 신부 영클너서 논다.	

가 끊어 넘치고 거리마다에는 손수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춤추었다.¹⁷⁾ 그러나 36년만에 조국을 되찾은 감정이 가시기도 전에 38선이 가로놓이는 국토 분단이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¹⁸⁾

남북 분단의 조짐이 차츰 깊어 가는 속에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여 널리 애창된 <가거라 삼팔선>¹⁹⁾의 피난갈 때 ‘등에 맨 보따리’ 속에는 당시 분단된 조국으로 인한 국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다. 그 조국 분단의 애환을 담고 힘겹게 고개를 넘었던 것이다.

아 꽃필때나 오시려느냐
아 눈올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매고 넘는 고개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가거라 삼팔선>

이런 전 국민의 애환은 <울고 넘는 박달재>의 ‘비에 젖은 물항라 저고리’나 <향기 품은 군사 우편>의 군사 우편을 받기 위해 썼는 ‘행주치마’ 속에서도 담겨 있다. 고운 물항라 저고리는 전쟁이라는 굵은 비로 젖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슴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전쟁 속에서 집안 살림을 돌보던 여인네들은, 소중한 군사 편지를 받아 들고는 눈물을 흘리곤 했던 시절이었다.

한편, 개방적이며 자유 분명한 서구(특히 미국)의 대중 문화는 국내의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결과하였다.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슈샤인 보이>는 휴전 후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며²⁰⁾ 일련의 서구 지향적인 경향을 구두를 닦으라는 ‘슈샤인’을 통해서 표현했다.

17) 박찬호, 전계서, p.498.

18) 김동욱, 한국복식사, 한국문화대계 7, 고대출판부, 1979, p.25.

19) 박찬호, 전계서, p.346.

20) 김영준, 전계서, pp.307~308, 재인용.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주색을 밝히는 것으로 허세를 부리려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특히 여러 모로 불확실하고 암울했던 전후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중에서도 미국을 위주로한 서양의 문물이 직접적으로 유입되어 가진 자들을 사치가 적지 않았고, 시민들 역시 서구의 사고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전래의 근면 절약 정신이 급속히 퇴색하기 시작하였다.²¹⁾

<빈대떡 신사> 속에 나오는 '양복 입은 신사'는 당시 향락을 좇던 사람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후 실의에 빠져 향락만을 좇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누나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가지 돈이 없어서
 돌아갈 땐 몸을 내어 들어가더니
 나을적엔 돈이 없어 찢찢매다가
 뒷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매를 맞누나
 으하하 우습다 이히히 우습다 하하하하 우습다.
 돈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무어나
 기생집이 무어나

- 한복남 작사, 작곡 <빈대떡 신사>

동족상잔의 6.25이후에 나온 <금수 강산에 백화가 반발하구나>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통일 나라에 대한 사랑이 선명한 '노랑꼬깔'에 담긴 징, 장구 소리와 어울리고 있다.

1950년대 말 전후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던 환경에서 적극적인 처녀 상을 묘사한 <처녀 뱃사공>이 커다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처녀 뱃사공>에는 강바람을 '치마폭'에 맞으며 열심히 일하는 처녀상이 묘사되어 있다.²²⁾

이 시기의 유행가요속에 나온 보따리, 저고리, 행주치마, 치마폭, 양복, 노랑꼬깔 속에는 전쟁의 애환과 당시의 커가는 사치 풍조,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위한 노력과 희망이 달려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복식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해방부터 1950년대 까지의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용어

· 보따리 등에 매고 낚는 고갯길	· 물항라 저고리가 비에 젖는구려
· 행주치마 씻은 손에 받은 넘소식은	· 슈샤인 보이
· 구두를 닦으세요'	·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누나
· 노랑꼬깔에 징장구 울리며 춤을 넣실 추어라	·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에 스치면

21) 상계서, p.514.

22) 상계서, p.582.

3. 1960년대

자유당의 부정 선거에 이은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시작된 1960년대에는 다시 대중가요의 번성기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의 대중가요는 밝은 내용의 노래 투로써 5.16군사 혁명이 성공하면서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에 영향을 입은 것이 원인이었다. <빨간 마후라>는 밝고 명랑한 노래로써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²³⁾ 선명한 ‘빨간색 마후라’를 통해 밝고 표현된 희망적인 시대상은 <노란 샥스의 사나이>에도 나타나 있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석양을 등에 지고 하늘끝까지
폭음이 흐른다 나도 흐른다
그까짓 부귀영화 무엇에 쓰랴
사나이 일생을 하늘에 건다

-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빨간 마후라>

<대머리 총각>을 불렀던 김상희는 1968년 <단별신사>를 노래하여 다시 인기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물자가 흔한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소 궁핍한 느낌도 드는 이 노래는 모든 물자가 귀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다.²⁴⁾

시작되는 경제 발전속에서도 서민들의 넉넉하지 못했던 생활이 신사의 하나뿐인 ‘단별옷’과 ‘넥타이 두개’에 잘 나와 있고, 넉넉하지 못했던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들이 유쾌하게 표현되어 있다.

단별신사 우리 애인은 서른 한살 노총각님
단별옷에 넥타이 두개 언제나 변함없죠
멋이야 없지만 마음만은 진실해
주머니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단별신사 노총각님 당신을 사랑해요

- 김문웅 작사, 정민섭 작곡 <단별신사>

이 시기의 대중 가요 속의 빨간 마후라, 노란셔츠, 단별옷, 넥타이 등은 물자가 부족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경제 건설의 밝은 희망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복식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3) 이상희, “우리 대중가요의 종합진단”, 월간객석, 주식회사 예음, 1984년 6월, p.162.

24) 김영준, 전계서, p.554.

<표 3> 1960년대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용어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노란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단발 신사 우리 애인도 서른 한살 노총각님
 단발 옷에 넥타이 두 개 언제나 변함없죠
 주머니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로 재임을 당하는 등 경찰에 풍속 사범으로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경향을 한 두번쯤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비꼬아 포크 듀오 셰그린이 1972년에 노래한 <어떤 말씀>이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²⁵⁾ 당시 어떤 말씀 속의 '긴 머리'와 '짧은치마'는 실제로 일어나곤 했던 당시의 상황이 사실대로 남겨 있다.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채로 명동에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것 참 야단났군요 아저씨(경찰)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 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머리 싹둑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짧은 치마 입고 명동에 나갔죠
 내 치마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것 참 야단났군요 아저씨(경찰)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 갔더니 그 다음은 말 안할래요
 -<어떤 말씀>

당시에 포크 송이 짧은 시간에 사회적인 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지면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젊고 건강한 시각이 메세지로서 노래에 반영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일례로 서유석은 '학교 앞에는 대포집이 들어요, 양장점이 열어요'라고 한심한 소비풍조를 비꼬고 있다.²⁶⁾ 서유석의 노래 가사로 당시에 학교앞에 즐비하던 양장점은 과소비를 직접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1970년대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둘째는 물질만능주의이고,²⁷⁾ 그 속에서 <옛생각>등이 날로 각박해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와 안정 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노래로 유행되었다.²⁸⁾ <옛생각>속에는 '꽃대기를 매고 놀던 친구'가 나온다. 그 냉기 맨 친구를 통해서 지난 날에 대한 그리움과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25) 상계서, p.585.

26) 상계서, p.567.

27) 임희섭,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82, p.225.

28) 김영준, 전계서, p.587.

<표 4> 1970년대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용어

어머님 말씀 안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에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어머님 말씀 안 듣고 짧은 치마 입고 명동에 나갔
 죠
 학교 앞에는 대포집이 들어요 양장점이 열어요
 꽃땀기 매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1970년대의 대중가요 가사속의 긴 머리, 짧은 치마, 꽃땀기 등의 복식 관련어들은 긴 머리를 잘리거나, 짧은 치마를 입어 경찰에 잡히곤 하고, 소비 풍조가 만연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 것들이 담겨 있고, 날로 각박해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복식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5. 1980년대~1994년

일제에 대한 민족의 한이 표현이라는 일관을 보인 1920년부터 해방까지의 시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그 특색으로 다양함이 나타난다.

키가 큰 거대한 도시와 공업화 되는 사회 속에서 각박해지는 현실을 자연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회귀현상으로 둘러려는 경향이 1970년대에 이어 이 시대에 더욱 짙어졌다.

<여행을 떠나요>에 나오는 주말마다 아니면 틈나는데로 '배낭'을 메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맨 배낭 속에는 이런 도시와 사람을 떠나 푸른 자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 떠나는 것이다.

또 <사모곡>에 나오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럴 때 떠오르는 지난 시절의 가난을 겪던 무명치마와 <칠갑산>에 나오는 홀어머니를 두고 시집간 아낙네의 흠뻑 젖은 베적삼 속에도 자연과 가족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돌아가고픈 마음이 배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세대가 출현하였다. 신세대들은 기존의식이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던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²⁹⁾, 그런 모습이 <아웃 사이더>에 나오는 '더부룩한 머리에 낫은 청마지'와 '검은색 가죽점버' 입은 손에 들린 '하이테크의 책' 그리고 '같은 모양의 헤어 스타일과 유행따라 옷을 입고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쓰는 것은 개성없어 보여 싫지' 하는 가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시대는 1950년대 까지도 인내가 요구되는 인본주의적 제 1차 산업을 주로 영위해온 세대로부터 핵가족시대의 정착과 함께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과거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패션과 황금만능주의적 산업사회 아래서의 인스턴트 문화들이³⁰⁾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와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서 희귀한 진실과 대중의 가치적인 모습들이 <뺨에로는 우릴 보며 웃지>속의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발도 못하는 걸' 속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런 세상을 구전가요를 가사로 한³¹⁾ <세상은 요지경>속에서는 '영감상투 뺨떨어지고 할멈신발 도망갔네, 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9) 박순양,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대한 연구, -1945년 이후의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35.

30) 김영준, 전계서, p.594.

31) 삼호 출판사편, 최신 가요 대백과, 음악 도서 삼호출판사, 1995, p.321.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자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살면 칠팔십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 상투 빠들어지고 할멈신발도 도망갔네
 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못난대로 산다
 - 구전가요, <세상은 요지경>

또한 <재즈카페> 속에 나오는 '블루진 하이힐' 그리고 '사람들의 목마다 걸린 넥타이'와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사는가'라는 가사 속에서도 희귀한 진실과 대중의 가식적인 모습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진지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은 <타타타>의 '산다는 긴 좋은기지 수지맞는 장사라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벌은 건졌잖소'에서도 나와 있어서 현대인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전시대의 유행가요속에는 패션의 변화나 경향이 단편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대의 유행가요 속에는 유행경향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획일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옷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성을 보인 이 시기의 유행경향³²⁾이 명확히 드러난 가사들이 그전 시기보다 많이 있다.

<첫인상>속에 나오는 '긴 머리와 긴 치마'를 대신한 '짧은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가 그 좋은 예이다. 그 속에는 이전의 긴 머리와 긴 치마가 아닌 찢어진 청바지라는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행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규격화, 획일화에서 벗어나 점차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감각화를 추구하게 ³³⁾ 되었고 하나의 일례로 이전과는 달리 흰 양말을 신은 사람들의 수가 줄고 옷에 맞춰 양말색을 고르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뚜벅이 사랑>속의 '양말이 흰색이라 무시했지'라는 가사속에 나타나 있다.

1992년에 다시 불러진 1954년에 나온 <낭랑 18세>의 가사속에 삽입된 가사는 변화된 패션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가사 첫줄의 '저고리 고름 말아쥐고서' 앞에 1992년의 노래는 '하얀 도시 따사론 햇살, 하얀 티에 청바지'라는 말이 삽입되어서, 1950년대의 입었던 '저고리'와

32) 박순양, 전계문, p.54.

33) 김수정,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8, p.68.

최근의 대표적인 복식인 '흰티에 청바지'가 대조되면서 유행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하얀 도시 따사른 햇살
 흰티에 청바지
 때마처 들려오는 음악소리
 난잡한 맘 털어버리고
 라디오 볼륨을 켜고
 저고리 고름 말아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십팔세
 비들었지는 앞개울에서
 소쩍새 울때만 기다립니다.
 소쩍궁 소쩍궁 소쩍궁 소쩍궁
 소쩍궁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 님 오신했어요

- 유 호 작사, 박시춘 작곡 <낭랑 18세> 1절

이 시기의 유행가요에는 배낭, 무명치마, 베적삼, 낚거나 찢어진 청바지, 가죽점버, 영감상투, 할범신발, 넥타이 하이힐 등의 복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1994년에 이르는 시기는 다양함을 그 특색으로 한다.

그 속에는 1970년대를 이어 거대해지는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 자연과 가족으로 돌아가려하는 회귀현상과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신세대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짙어가는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대중이 진실을 찾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더불어 인생에 대한 반성과 진지한 태도들도 있다. 그리고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이전 시대의 유행가요 속에는 복식 유행의 경향이 나 유행이 단편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하고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복식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980년대부터 1994년 까지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용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말도 못하는 걸
무명 치마 졸라매고 새벽이슬 맞으며	영감상투 빠들어지고 할범신발 도망갔네
콩밭 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누나	까만머리 까만눈에
더부룩한 머리에 낡은 청바지	사람들의 목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며칠씩 굶기도 하고 검은색 가죽 점버 입고 다녀도	산다는건 좋은기지 수지맞는 장사라서
손엔 하이테거의 책이 있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벌은 건졌잖소
다들 같은 모양의 헤어 스타일	긴머리 긴 치마를 입은
유행따라 웃을 입고 다른 이의 서선을 신경쓰는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것은 개성 없어 보여 싫지	흰 티에 청바지-저고리 고름 말아쥐고
	서

IV. 결 론

이상과 같이 1920년대 부터 1994년에 이르는 유행가요 속에 표현된 의복의 시대 상징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920년대~해방 전

당시 대중가요의 복식속에는 빼앗기고 유린된 국토와 그로 인해 느끼는 민족의 아픔과 수탈, 그리고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가득한 그리움이 함께 노래되었다.

2. 해방 이후~1950년대

이 시기 유행가요의 복식에는 6.25전쟁의 애환과 뒤이어진 일련의 서구지향적인 경향과 당시의 커가는 사치풍조가 나타나 있다. 또한 건후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새로운 나라를 위한 노력과 희망이 담겨 있다.

3. 1960년대

이 때의 대중가요 속의 복식에서는 당시의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를 잘 반영되어 있고, 경제 발전 속에서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생활이 나타나 있다.

4. 1970년대

당시 대중가요 속의 복식에는 긴 머리를 갈리거나 짧은 치마를 입어서 경찰에 잡혀온 하던 모습과 소비풍조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풍지한 것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날로 각박해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도 나타나 있다.

5. 1980년대~1994년

일제에 대한 민족한의 표현이라는 일관성을 보인 1920년~해방전까지의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시대는 다양함이 그 특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전시기와 다른 점은 이전시대의 유행가요속에는 단편적으로 복식 유행의 경향이나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 시기엔 좀 더 다양하고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이후의 유행가사 중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복식 변천사, 유행가요의 변천사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었으며, 유행 가사 속에 나오는 복식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1920년대 이전의 유행가요 속에 나오는 복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복식과 유행가요의 변천에 관한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김미경,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서의 대중가요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논문, 1990.
2. 김동욱, 한국복식사, 한국문화사대계 7, 고대 출판부, 1979.
3. 김수정,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88.
4. 김영준, 한국가요사 이야기, 아름출판사, 1994.
5. 김창남, 삶을 지향하는 노래 ‘노래운동론’, 공동체, 1986.
6. 박성진,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매체 변화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3.
7. 박순양,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45년 이후의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8. 박찬호, 한국가요사 1895년~1945년, 안동림 옮김, 현암사, 1992.
9. 삼호출판사편, 최신가요대백과, 음악도서 삼호 출판사, 1995.
10. 이상희, “우리 대중 가요의 종합 진단”, 월간객석, 주식회사 예음, 1984년 6월.
11. 임희섭,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82.
12. 한명숙,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 박사논문, 1987.
13. 한상복외,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4. Moissej S. Kagan, *vorlesungen zur marxistisch-leninisch Asthetik*, Berlin, 1975.
15. 진중권역, 미학강의 II, 셋길, 1991.
16. Susan Kaiser, 복식사회 심리학, 김순심외역, 경춘사, 1991.